

범죄극 '독전' 거침없는 형사로 출연... **조진웅**

아니나다를까? 이번에도 캐릭터와 합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장악하다시피한 극장가에 한국 영화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범죄극 '독전'이다. 거대 마약 조직의 정체불명 보스 '이 선생'을 잡으려는 압투·추격전이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2015) 등을 연출한 이해영(45)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선생을 쫓는 형사 '원호'를 연기한 조진웅(42)은 "단순한 범죄액션물이 아니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원호는 선과 악을 거침없이 넘나든다. '도장깨기'를 하듯 여러 인물을 차례로 만나면서 점점 독해진다. 마약 조직에서 버림받은 '닥'(류준열)과 공조하며 마약까지 흡입한다. 조진웅은 이 선생을 미친듯이 추적하는 캐릭터를 위해 약 10kg를 감량했다. "이 감독이 원호가 편안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슬랩한 게 좋겠다"고 했다. 확실히 살을 빼니 캐릭터도 실감났다. 액션스쿨에 들어가 지도도 받았다. "권지훈 무술 감독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덕분에 체력이 강해져 액션 연기를 잘 소화할 수 있었다." 조진웅은 강렬한 아우라와 몸을 던지는 열연으로 극을 이끈다. 영화 '끝까지 간다'(2013), tvN 드라마 '시그널'(2016)에 이은 또 한 번 형사 역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형사와는 결이 다르다"며 "기존의 작품에서는 강력한 형사 이야기를 참고한 적이 있는데, 원호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구분

했다. "결국 영화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의를 수호하려는 것은 맞는데, 이 선생을 잡으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원호의 심리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류준열(32)과의 브로맨스는 훈훈함을 더한다. 조진웅은 "몸도 정신도 건강한 친구"라며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했다. 핵심적인 의미를 잘 끌고 갔다"고 류준열을 평했다. 마약시장 거물 '진하림'을 책임진 고 김주혁에 대해서는 "리허설, 대본 리딩 때도 어떻게 연기할지 안 보여줬는데 역대급이었다. 주혁 선배 연기를 따라갈 수 없었다"며 극찬했다. 내년이면 데뷔 20년째인 그는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연극배우였던 조진웅은 1999년 방송된 MBC TV 드라마 '왕초'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2004년 영화 '탈주거리 잔혹사'를 통해

선과 악 넘나드는 형사 원호 거대 마약조직 보스 '이 선생' 추격 캐릭터 위해 10kg 감량 "슬랩한 게 좋을 거 같아 선택 살을 빼니 캐릭터도 실감나 원호의 심리 따라가고자 노력"



영화에 데뷔한 그는 다작 배우로 거듭났다. '해빙' '보안관' '범죄도시' '대장 김창수' '공작', 지난해 참여한 작품만 5편이다. '독전'에 이어 '공작' '완벽한 타인' '광대들'(가제)로 올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자신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조진웅은 "연기를 그만뒀다"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후배들이 연기를 그만 두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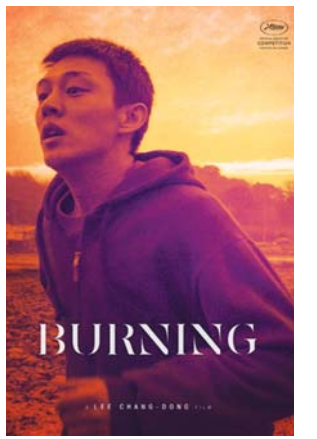
SBS TV '훈남정음', 5.3% 시청률로 출발

SBS TV 수목드라마 '훈남정음'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첫 방송한 '훈남정음' 1. 2회 전국 시청률은 5.3, 5.2%다. 전작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 최종회 시청률(6.7, 7.0%)보다 낮다. 동시간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KBS 2TV '슈츠'는 9.9%로 수목극 1위를 지켰다. MBC TV '이리와 안아줘'는 4.2, 4.7%에 머물렀다. 이날 첫 방송에서는 '강훈남'(남궁민)과 '유정음'(황정음)이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훈남은 유정음이 남자친구와 이별하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 "나를 여자가 생겼다"며 남자친구는 자리를 떠났고, 유정음은 눈물을 쏟았다. '훈남정음'은 비연애주의자 강훈남과 사랑을 꿈꾸지만 파란 현실에 연애포기자가 된 유정음이 커플매니저로 일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남궁민(40)·황정음(33)·오윤아(38)·최태훈(27) 등이 출연한다. /뉴스

유아인 '버닝', 세계가 '주목'

칸 영화제서 러브콜 받아 100여개국 수출

영화 '버닝'이 세계적으로 인기다. 제작사 파인하우스 필름에 따르면, '버닝'은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7회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전 세계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받고 100여개국에 수출됐다. 프랑스·홍콩·중국·타이완·싱가포르 등의 사전 판매된 데 이어 영화제 프리미어 시사를 마친 뒤 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페인·그리스·폴란드·베네룩스·구소련연방·터키 등에 추가 판매됐다. 파인하우스필름은 "현재 이탈리아·독일·포르투갈 등 과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남미 등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버닝'은 이창동(64) 감독이 '시'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유통회사 아르바이트생 '종수'(유아인)가 어린 시절 한동네에서 자란 친구 '헤미'(전종서)를 만나 정체 불명의 남자 '벤'(스티븐 연)을 소개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뉴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원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